보도시점 : 2025. 8. 27.(수) 11:00 이후(8. 28.(목) 조간) / 배포 : 2025. 8. 27.(수)

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

- 비닐봉투 제공 중단, 기내 격리보관백 비치, 온도감응형 스티커 도입 등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,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'**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**'을 **일부 보완**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.

○ 시행 초기, **국제기준에 따른 단락(합선) 방지 조치***를 적용하기 위해 **비닐봉투**를 **제공**하였으나, 이에 대한 **환경오염** 등의 **우려**가 **지속** 제기됨에 따라,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**전문가, 소비자 단체,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** 등과의 **지속적인 협의**를 거쳐 이번 **보완방안**을 **마련**하였다.

* ① 비닐봉투에 보관, ② 절연테이프 부착, ③ 단자 보호캡 사용, ④ 보호 파우치 보관

□ 특히, 이번 보완방안은 **안전성과 이용자 편의**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**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**하기 위한 것이며,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·용량 등 제한 조치*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·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 ① 100wh 이하: 5개(초과 시 승인 필요), 100~160Wh: 2개(승인 필요), 160wh 초과: 반입 불가, ② 단락방지 조치 필요, ③ 기내 선반보관 금지, ④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

❶ 단락방지 조치 관련

- 앞으로는 **비닐봉투 제공을 중단**하고, 항공사 수속카운터, 보안검색대, 탑승구,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**절연테이프를 제공**할 예정이다. 다만,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.

❷ 기내 격리보관백 탑재 의무화

-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**기내에 격리보관백**(Fire Containment Bag)을 **2개 이상 필수로 탑재**하여야 한다.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,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·보관하여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.

❸ 기내 선반에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

-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**기내 선반 외부**에 **부착**(9.1부터 순차적 부착)하게 되며, 선반 내부의 **온도가 상승**하면 **스티커**의 **색**이 변하게 된다.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**선반 내 온도 상승**을 **조기**에 **인지**할 수 있어, 화재 발생 시 **신속한 초기 대응**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❹ 승무원 훈련 강화

-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,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**실제 소화기 사용**을 포함한 **진압훈련**을 실시토록 하고,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.

❺ 안내 및 홍보 강화

-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**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**한다. 또한,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**구두 안내**를 **강화**하고,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.

❻ 국제협력 추진

- 현재 **국제민간항공기구**(ICAO)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(7월) 및 아태항공청장회의(7월)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**논의**를 **진행**해 왔으며, 앞으로도 ICAO 총회(9월)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**국제기준 강화**를 위해 **지속 논의**할 **예정**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“이번 보완방안은 **승객불편**을 **최소화**하고, 기내 **화재위험관리**와 **대응방안**을 **개선**한 것”이라며,

○ “앞으로도 **이행 상황**을 **지속적으로 모니터링**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**추가적인 대책**을 **지속 보완**하고,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**국제기구**와도 **긴밀히 협의**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□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**9월 한 달간**,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**항공안전감독**을 **집중 실시**하여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, **미흡한 사항**에 대해서는 **사업개선명령** 등의 조치를 통해 **항공사**들의 **이행력**을 **제고**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	책임자	과 장	강정현 (044-201-4259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44-201-4271)
		담당자	주무관	노재준 (044-201-427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**

❶ 단락방지 조치(절연테이프 활용)

공항·기내에서 **비닐봉투 제공을 중단**하고, **절연테이프 제공 및 이용 활성화**

* 승객의 자율적인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 가능
(① 비닐봉투에 보관, ② 절연테이프 부착,
③ 단자 보호캡 사용, ④ 보호 파우치 보관 등)

❷ 기내 격리보관백 비치

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 등 **화재 발생 시**, 화염확산 방지·보관을 위한 **격리보관백 2개 이상 기내 비치**

❸ 온도감응형 스티커

기내 선반 내 화재발생 시 **조기인지** 및 **신속대응**을 위해 **온도에 따라 색이 변화**하는 **스티커** 선반 외부에 **부착**

* 온도 상승 시(40도 이상) 빨간색으로 변화

❹ 승무원 훈련 강화

기내 화재 발생 시,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 실사용 등 **실효성 있는 화재 진압훈련** 실시

❺ 안내 지속 강화

승객 탑승 시, 기내에서 승무원이 선반 보관 금지 등에 관한 **승객 구두 안내**를 **강화**하고,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

❻ 국제 협력

우리나라의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국제회의에서 공유하고,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ICAO와 지속 논의